



4면

김승수 전주시장 "농촌진흥청 협력강화"

전주매일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음 5월 30일) 제281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8일 익산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김성주 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2022년 전북도 국가예산 요청사업 및 SOC 국가계획 반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북 현안 반영, 당 차원에서 지원을”

송하진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비롯한 당면 현안 해결과 전북형 뉴딜사업 등 내년도 국가예산 증점사업 반영을 위해 당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도 예산정책협의회

송하진 도지사, 전북형 뉴딜 포함 기후변화 대응 미래 신산업 등 중점사업 23건 적극 지원 요청

전주~김천 철도건설 위한 사전타당성용역 조기 추진 용역비 5억원 반영 건의

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전북도는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전북형 뉴딜사업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중점사업 23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통과와 2022년도 예산에 165억원 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타 선정을 요청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차 모빌리티 실증단지 완성을 위한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사업비 64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전북의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로는 그린뉴딜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풍력 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과 해양무인이동체 기술 검증에 최적화된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생명산업 분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사업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서해비엔날레 관광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 국제 생활체육종합대회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와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새만금·SOC 분야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 새만금 잠버리 용지에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SOC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 시급한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차원의 총력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진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사업’의 추진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전타당성용역 조기 추진과 함께 용역비 5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제3공용중심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장기 표류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과 함께,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법안 마련에도 힘이 돼 주길 부탁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지역주재기자(익산)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접수기간 2021년 7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행정 한류의 새로운 콘텐츠”

네덜란드 등 10개국 대사 포함 46개국 외교사절단
완주 수소·새만금 태양광 등 그린뉴딜 현장 방문

46개국 56명의 주한 외교사절단과 외신기자단이 전북도의 그린뉴딜 사업 취지를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전북도는 네덜란드, 파나마 등 10개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총 46개국 56명의 외교사절단과 외신기자단이 그린뉴딜 1번지인 완주 수소 산업 현장과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현장을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현장 방문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산업 발굴과 이를 주도하는 전북도의 우수 정책을 소개하며, 외교사절단의 높은 호응도를 끌어냈다. 외교사절단은 이날 오전 완주에 위치한 현대 수소 상용차 공장과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수소차 기술 및 수소경제 전환을 준비하는 전북도의 정책을 연찬했다. 오후에는 새만금으로 이동해 육

상태양광을 포함한 새만금 지역의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고규창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수소·신재생에너지 기술과 정책 현장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외신기자단의 전북형 그린뉴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지역 균형 뉴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어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 한류의 새로운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외교사절단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전북도는 정부와 도내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깨끗한 에너지로 지역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